

## 6. 나는 나를 닮은 사람들을 찾고있어... 그들은 나의 아름다움들이야.

2014.09.01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주님은 주님의 신부들 혹은 잠재적으로 신부가 될 사람들의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 휴거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준비시키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유했던 것처럼 미국의 경기침체의 이유는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을 세상에서부터 데려오기 위해서 허용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한 그들의 생각들을 떼어내고 주님께 전념시키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에는 번영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번영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번영할 믿음이 없다면 정말 성공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이건 진리와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번영과 돈은 신약에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마지막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지만,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기준을 설정하셨어요.

주님은 왕이나 왕자로 태어나거나, 왕이나 왕자처럼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소박하고 가식이 없는 삶을 선택하셨어요.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과 닮은 신부들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사람들은 나의 신부들이 아니야. 나는 깊이 뉘우치고 독실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찾고 있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을. 나는 나와 닮은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것이 나의 신부들의 모습이야. 나는 낮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싶어. 그들이 나의 아름다움이야. 그들은 지구에서 가장 나와 닮은 사람들이야.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의 기독교인들은 바빌론의 아름다운 여왕들 혹은 너희들 시대에 할리우드와 닮았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루해할 것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여기는 할리우드가 아니야. 여기는 천국이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영혼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유명한 사람들과 그 무엇도 닮지 않았어.

나는 나의 신부와 나의 자녀들을 회개하도록 부르고 있어. 세상의 기준에서의 사랑스러운 사람이 나의 신부들이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은 나와 닮을 거야.

십자가에 못박히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냉담한 경멸로 인한 상처를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이 끌려. 그들은 천천히 무게 있게 그들의 고통들을 짊어 지지만, 너희들은 걸음으로 그것들을 절대로 볼 수 없어. 이 사람들이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야. 작고, 연약하고, 거부당하고, 소외된 사람들.

내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아. 하지만 이것보다 더 관련성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나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잠재적인 신부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 모두가 알기를 원해.

오히려 아주 작은 사람들, 자신이 나의 면류관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데려와라. 그들이 정말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합당하다고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줘라. 그들이 나의 신부들이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내가 사명을 주기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첫번째로 선택되어진 사람들과 똑 같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고, 낮고 욕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앞서게 될 거야.

(클레어) 이것이 지금 주님의 신부들과 교회들을 위한 주님의 메시지였어요.